



연꽃 닮은 깽깽이풀을 아시나요? 염증질환에 효과, 혈압강화작용 물질도 포함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이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물로 주목을 받는 경우는 허다하다. 우리나라에는 약 5,0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지만 이들 식물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가 자연자원에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우리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문·사진 김원혁(의학전문기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식물에 대한 시각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언제든 흔하게 마주칠 수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좀처럼 알아보지 못하다가도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뒤늦게 수를 치게 된다.

예전에 자연스럽게 쓰이던 잡초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지 못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잡초라는 것이 농사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키우는 식물이 아닌 풀을 일컫지만, 쓸모없는 식물이라는 뜻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녀석이 어느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잡초라는 비웃음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일이 부지기수니 '잡초'라는 굴레를 씌우기가 쉽지는 않다.

깽깽이풀은 예전에 흔한 존재였다. 그 때는 관상가치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귀해지니 사람들이 하나 둘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욕심이 생겼다. 그렇게 사람의 손을 타다보니 이제는 정부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됐다.

깽깽이풀이라는 특이한 이름은 비쁜 모내기철에 꽃을 한가로이 피우는 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깽깽이는 해금이나 바이올란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그것을 연주하는 악공들을 비하해 부르던 말이다. 산기슭에 한가로이 피어 있는 깽깽이풀의 모습에서 동화에 나오는 베짖이처럼 혼자 게으르게 음악이나 즐기는 한량을 떠올렸나보다.

웃감을 황색으로 염색할 때 사용하기도

햇살이 따사한 봄철 연보라색의 화사한 꽃을 피우는 갯쟁이풀은 야트막한 산자락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꽃봉오리가 파란 잎을 제치고 성급하게 그 자태를 뽐내며 지상에 불쑥불쑥 경쟁적으로 치솟는다.

연보라색 꽃은 연꽃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짧은 줄기에서 뻗어 올라간 줄기와 잎도 연꽃의 그것과 비슷하다. 또 모양과 색채 및 광택, 그리고 물을 배척하는 성질까지도 닮았다.

한방에서 갯쟁이풀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황련의 대용으로 쓰이며, 선황련이라 부른다. 뿌리와 줄기는 혈압강화작용이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염증이 생기는 각종 질환에도 쓰이는데 위염, 장염, 구내염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경불안과 신경과민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세들 또한 진정시킨다.

소화불량과 이로 인한 식욕감퇴를 개선하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 민간에서는 류머티즘, 설사, 출혈, 이뇨, 땀내는 약으로 써 왔다. 갯쟁이풀이 황련의 대용품으로 쓰이다 보니 갯쟁이풀의 효과에 대한 자료가 다른 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생물자원이 힘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자연자원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벌이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자원의 가치를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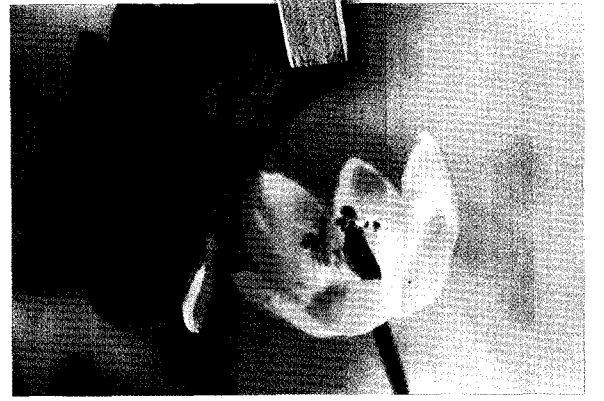
인류의 질병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스피린이나 타미플루 같은 약품이 모두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갯쟁이풀은 민간에서 옷을 염색하는 재료로도 쓰였다. 황색의 염료를 추출하는 부분은 황련의 뿌리로 색소량이 다소 적기는 하나 매염제가 없이도 선명한 물감을 들일 수 있다. 황련의 뿌리를 물에 담가뒀다가 노란 물이 우러나면 그 물에 천을 담갔다 꺼내 말리면 원하는 색깔을 얻을 수 있다.

법정보호식물 함부로 채취하면 처벌

갯쟁이풀의 종자에는 당분이 존재하는 밀선이 있어 개미와 같은 곤충이 잘 물어서 전파시킨다. 따라서 개미들의 활동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로 군락을 이뤄 자라는 경우가 많다.

야생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채취해 가까이 두고 보



려는 욕심 때문에 식물을 멸종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관상가치가 높은 일부 식물은 서식지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 오래 지나지 않아 멸종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지만 갯쟁이풀은 법정 보호식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물론 법정 보호식물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채취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황련과 갯쟁이풀

흔히 갯쟁이풀을 황련으로, 황련을 갯쟁이풀이라고도 하지만 두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황련(*Coptis chinensis*)은 상록성 여러해살이풀로 한방에서는 세균성 및 아메바성질, 장염, 폐결핵, 백일해, 급성결막염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중국과 일본에 분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갯쟁이풀(*Jeffersonia dubia*)은 매자나무과로 황련과 달리 낙엽성 여러해살이풀이다. 황련의 대용품으로 쓰이는 갯쟁이풀은 한방에서 모황련(毛黃連)이나 선황련(鮮黃連)으로 불린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I급으로,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을 II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갯쟁이풀은 II급에 속한다. I급 대상종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II급 대상종에 같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